

호남 중진간 경쟁 구도에 외부인사 합의추대론 가세

국민의당 당권 싸고 신경전

천정배 “외부 추대 못할 것 없다” 전당대회는 연기론에 힘 실려 당권-대권 분리 놓고도 온도차

국민의당에서 차기 당권을 둘러싸고 전당대회 연기론에서부터 외부인사 추대론까지 제기되는 등 다양한 해법이 나오고 있다.

일단 전반적인 분위기는 전당대회 연기론에 힘이 실리고 있다. 창당 2개월이 갓 지난 신생정당으로 제대로 된 전당대회를 치를 수 없다는 것이다.

국민의당은 당헌·당규에 따라 창당 6개월(오는 8월2일) 전에 전당대회를 열어 새 지도부를 선출해야 하지만 이를 위한 진성당원과 대의원 등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당은 전국 253곳 지역구의 70% 수준인 160곳에서만 후보를 내면서 전국적인 조직을 갖추지 못했다.

여기에 당권을 둘러싼 갈등을 차단하고 차분한 준비를 통해 전대를 내실 있게 치러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국민의당 관계자는 “전당대회를 하려면 전국적인 조직개편 작업을 해야 하는데, 한두 달에 될 일이 아니다”며 “여기에 조직이 정비되지 않은 채 전대가 치러지면 각종 논란으로 전당대회가 아닌 분열대회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안철수·천정배 공동대표가 20일 서울 마포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주승용 원내대표와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런 가운데 천정배 공동대표는 당 대표로 외부인물 추대론을 거론해 논란이 일고 있다.

과거 새천년민주당 서영훈 전 대표, 통합민주당 오종일 전 대표 등을 거론하며 내부 합의만 이뤄진다면 가능하다는 것이다.

호남 중진 간의 경쟁 구도가 될 것으로 전망됐던 당권 구도에 의외의 ‘다크호스’가 등장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당권-대권 분리를 규정할 당헌은 현행 유지 쪽에

갈수록 무게가 실리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여전히 개정을 주장하고 있어 결론이 주목된다.

당헌에 따르면 대선에 출마하려는 당직자는 대선 1년 전 당직을 사퇴해야 하고, 오는 7월로 예상되는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당 대표가 내년 대선에 도전할 경우 불과 4개월여 만에 대표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주승용 원내대표는 평화방송 라디오에 출연, “(당권-대권을 분리한) 당헌·당규를 원칙으로 해야 한다”고 밝혔고, 박지원 의원이 지난해 새정치민

주연합 전당대회 때부터 당권-대권 분리를 주장해 왔다.

여기에 안 대표도 같은 입장인 것을 감안하면 당내 흐름은 현행 당헌 유지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일부 안 대표와 가까운 인사들은 이 같은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어 논란을 낳고 있다.

천정배 대표는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당권-대

권 분리 규정에 대해 “정치권에 정착된 관행”이라면서도 “대선 1년 전인 오는 12월까지 과도기를 어떻게 갈지는 내부 여러 사정을 고려할 수 있다. 당내에서 좀 더 깊이 있게 토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당은 오는 26일부터 27일까지 1박 2일간 경기도 양평 한화리조트에서 열리는 ‘20대 국회의원 당선자 워크숍’에서 전당대회 개최 여부 등 당내 현안에 대해 논의한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국민의당 최고위원, 쟁점법안 ‘맨투맨’ 전담 마크

청년·노동·정치 법안 4월 임시국회서 우선 처리

국민의당은 20일 오는 4월 임시국회에서 청년·노동·정치 관련 쟁점법안을 우선으로 처리하기로 했다. 또 각 최고위원이 주요 이슈를 하나씩 맡아 처리 과정을 직접 챙기기로 했다. 국민의당은 이날 서울 마포당사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우선, 안철수 상임공동대표는 청년고용촉진법 등 청년실업 대책 가운데 여야 합의가 가능한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자고 말해 노동 문제 해결에 힘을 실었다. 안 대표는 가슴기 살균제 사건과 관련해서도 상임위 차원에서 법제도를 보완할 것을 요구했다.

천정배 공동대표는 “근로자 10명 중 1명이 최저임금도 못 받고 있다”며 올해 6030원 수준인 법정 최저임금을 근로자 평균임금의 50%까지 올릴 것을 제안했다.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4·13 총선 이후 공공기관 장 인사에서 여론의 ‘낙천·낙선인사 쟁기’가 우려되는 이른바 ‘정피아(정치인+마피아) 낙하산 인사’ 문제를 지적했다. 장 정책위의장은 “앞으로 3개월 안에 20명이 넘는 공공기관장들의 임기가 만료된다”며 “(정피아)인사들로 공공기관이 채워진다면 필연적으로 공공성 상실과 부실의 늪에 빠지게

될 것”고 말했다.

주승용 원내대표는 정부가 지난 15일 입법예고한 테러방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철회를 요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최고위 이후 기자들과 만나 “19대 국회는 정리 국회인 만큼 시급한 민생문제를 우선으로 할 것”이라며 “오는 2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처리할 법안을 확정된 뒤 25일 3당 수석부대표 협상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최고위원들이 각각 시급히 처리해야 할 쟁점법안을 제시하면서 일각에선 지도부 간 엇박자로 당력이 분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일부 사안을 두고 중도를 지향하는 안 대표와 개혁 색채가 두드러진 천 대표, 정동영 의원 간 이견이 나타나고 있어 주목된다.

이와 관련, 박지원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황금 3당을 만들어 준 국민은 국민의당이 제발 싸우지 말고 단결해 민생경제를 챙기고 잘못된 정책과 법은 차근차근 고치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승리했다고 점령군의 완장을 차고 겸손치 못하면 국민은 무서운 심판을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1 18년 연속 (1999~2016) 가정용 보일러 브랜드 1위

www.krb.co.kr

가정용보일러 1위 귀뚜라미는 가격이 아닌 가치를 팝니다

목욕이나 샤워 중에 찬물이 나오거나 가스비가 많이 든다고 생각되시면 귀뚜라미보일러로 바꿔주세요.

가스누출에 의한 폭발 사고 및 중독 사고를 방지하고 지진에 의한 2차 화재 피해를 예방하는 안전장치까지 내장했습니다.



보일러가
알아서 다~



IoT·저녹스 귀뚜라미 보일러

언제, 어디서나 사물 인터넷으로 인한 상상도 못했던 귀뚜라미의 기술!

- 어디서나 스마트폰으로 보일러를 작동할 수 있는 원격제어 시스템
- 사용 패턴 분석을 통해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마트 학습 기능
- 샤워 중에 찬물이 나오지 않는 한국온도에 맞춘 저장식 보일러
- 안전 관련 기술인 가스누출 탐지기와 지진감지기가 내장된 보일러
-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등의 공해 방지 1등급의 친환경 보일러
- 한 달만 비교해도 가스비 절약을 알 수 있는 고효율 보일러
- 전국 어디서나 빠른 A/S를 제공하는 독보적인 서비스체계



1588-9000

*가정용보일러 1위: 귀뚜라미는 한국에너지산업의 선형 한국산업의 브랜드 파워 가정용보일러 부문 연속 18년 1위 기록입니다.

Kiturami

아찔한 열도... '붉은 후지산' 불 토해내나



(151) 일본



가츠시카 작 '붉은 후지산'

또다시 지진이 일본을 강타했다. 일본은 그 지진이 아름답지만 불안정한 자연 환경을 지닌 탓에 지진과 쓰나미, 화산 폭발 등 자연재해가 끊이지 않은 것 같다. 얼마 전 일본 후지산 인근에서 미세 지진 발생 건수가 급증하면서 일본 열도가 긴장하더니 최근 규슈 지방 지진에 이어 아소산 폭발 우려까지 겹쳐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는 듯하다.

일본 발 지진이나 화산 뉴스가 전해질 때마다 그 유명한 우키요에(浮世繪)의 대가 가츠시카 호쿠사이(1760~1849)의 작품 '붉은 후지산'(1830~31년)의 이미지가 겹쳐진다. '붉은 후지산'은 작가가 일본인들이 영산으로 여겨온 후지산에 일본의 민족혼을 투영하기 위해 묵관화로 제작한 36점의 연작 중 간결하면서도 과격적인 구성이 돋보인 가장 대표적인 작품. 정운의 줄무늬로 장식된 푸른 하늘을 배경으로 화산재가 덮여있는 붉은 산봉우리는 신비스러운 모습이지만 동시에 금방이라도 불을 토해낼 것 같은 기세가 아찔하게 느껴진다.

우키요에(浮世繪)는 말 그대로 '떠다니는 세상의 그림', 즉 당대 사람들의 이모저모를 그려낸 풍속화라는 뜻으로 일본 에도시대(1603~

1867)에 발달했다. 프랑스 파리 만국박람회에 들어온 일본 도자기의 포장지로 사용되었던 호쿠사이의 우키요에를 프랑스의 화가 브라크르가 발견하고 친구들에게 들려서 보여준 것이 인상파화가들에게 영향을 주게 되었다는 일화는 유명하다. '유혹하는 그림, 우키요에'의 저자 이연식씨는 "우키요에는 인간을 압도하는 자연의 모습, 현란한 색채와 날렵한 선묘로 구성된 화면은 사물을 꼼꼼하고 차분하게 묘사하지 않았음에도 경쾌하고 선명했으며 인물이나 사물을 영동한 각도에서 포착하면서 과감하게 강조한 특성들이 프랑스 화가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주었다"고 분석하고 있다.

마네, 모네, 세잔, 고흐 등의 인상파 화가들은 우키요에에 열광하면서 자신들의 작품에 조형적 영감을 받기도 했으며, 인상파 작곡가 드뷔시는 호쿠사이의 또 다른 유명한 판화 '가나가와 앞바다의 파도'를 보고 영감을 얻어 관현악곡 '바다'를 작곡하였다.

<광주비엔날레 전시부장·미술사 박사>